

금산농악의 특성과 그 위상

이보형*

〈차 례〉

1. 서론
2. 역사와 지리적 특성
3. 문화적 특성
4. 공연적 특성

1. 서론

금산농악은 민속경연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바 있고, 또 전주대사습놀이에 출전하여 장원을 할 만큼 기량이 뛰어나고 김봉룡, 장인삼과 같은 거장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 내용도 훌륭하지만, 실제 금산농악에 대하여는 전문가들에게는 알려져 있는데 반해 일반인들에게는 다른 농악에 비하여 그리 알려지지 못한 편이다. 그 이유는 금산지역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접경 지역이라 농악의 중심지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지리적 이유도 있지만, 한편으로 금산농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작업이 미진한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를 절감하였던지 금산 지역인사들이 금산농악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 같다. 지난번에 금산농악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이번에도 이런 학술대회를 갖는 이유도 같은 것으로 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하여 금산농

* 한국고음반연구회 회장

악을 선양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상태에서 금산농악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금산농악에 대한 기초 조사 보고서나 금산농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전문 학술서가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산농악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악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로 하여금 금산농악의 학술적 연구에 기여할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금산농악에 대한 기초 조사와 전문 연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농악 전문 학자들을 초청하여 금산농악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에서 성과를 얻으려면 학자들에게 일차적으로 금산농악 현지 조사보고서와 또 이를 토대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서가 많이 제공되어야 효과적이다. 하지만 지금 학자들에게 소개된 금산농악에 관한 것은 군에서 발행한 간단한 안내서가 있고 본격적인 금산 연구서로는 오직 이 지역 출신 농악인 민병상이 집필한 『금산농악의 현장연구』라는 학위논문¹⁾이 있을 뿐이다. 남원, 구례, 필봉, 강릉, 고흥 등 수많은 농악 전승지역에서 그 지방 농악을 연구한 전문서가 많이 나왔다는 것을 상기해 보면, 금산 지역에도 금산 농악에 대한 기초 조사보고서와 금산농악을 연구한 전문서가 많이 나와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해서 금산지역의 농악에 대한 전문적인 학술대회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먼저 금산농악에 대한 기초적인 보고서인 농악 민족지를 만드는 사업이 선행되고 이를 토대로 하는 전문적인 연구서를 내어 이를 학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을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줄 것으로 생각하는 이도 있겠지만 학자들이 자발적으로 금산 농악에 대한 민족지적 조사보고서와 전문적인 학술적 연구서를 내줄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다른 지역의 경우 같이 군에서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지역 당국에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금산 지역에서 이런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를 대비하여 먼저 금산농악을 민족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생성 문화적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농악전문가로 하여금 금산농악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타 지역 농악특성과 비교하여 금산농악의 위상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민병상, 『금산농악의 현장 연구』(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 역사와 지리적 특성

금산지역이 지금은 행정구역으로 따져 충청도에 속해 있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전라도에 속했다. 이는 금산지역이 지리적으로 복잡한 역사를 지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실제 금산 지역은 충청, 전라, 경상 삼도 접경지역에 위치하였던 관계로 삼남(三南) 지역의 문화를 두루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 지역 산세를 보면, 동남쪽에는 소백산맥이 지나고 그 지류로 노령산맥이 금산의 중앙부를 지니고 있어 양대 산맥의 중앙부에서 금산은 분지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지가 남으로 무주, 진안, 임실로 통하고 있다. 그런 연유로 현재 금산 지역에 전승되는 농약이 호남좌도농약인 것은 그 지리적 이유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장수에서 발원한 금강은 진안과 금산을 지나 영동을 거쳐 청주, 공주를 지나는데 전통사회에서는 화물이 수운(水運)으로 이동하는 비중이 컸으니 금산 지역이 충청도와 교류가 많았을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금산농약이 전통사회에서는 전라도 뿐 만 아니라 충청도 농약과도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금산 금강 지역에 ‘배걸립’이라는 농약이 성하였고 금산 송계지역 배걸립이 영동 옥천 지역까지 진출하였다는 것은 이런 이유로 설명이 된다. 이처럼 금산농약은 충청농약과 영향을 주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금산이 충청도로 편입이 된 뒤에는 충청도와의 교류에 박차를 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농약 또한 충청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 그 무렵에 금산에 와서 근무하던 교사가 내포농약을 가르쳐 충청도 영향이 있었다는 것도 지리 역사적 상황 변화로 설명이 가능하다.

조선시대 금산 지역에서도 많은 명인이 배출 되었을 것이지만 이를 기술한 문헌이 없어 알 길이 없는 것은 어느 지방의 경우나 마찬가지이다. 민병찬은 위 논문에서 간략하게나마 〈송계두레〉 시절 명인으로 최상근, 주기완, 김수동, 박수덕, 김윤선과 같은 명인에 대한 귀한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들이 연행한 농약이 호남 좌도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증언은 금산농약의 정체성을 논하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3. 문화적 특성

학계에서는 농악의 문화행위를 논할 때 흔히 예로 드는 것이 당산굿, 마당밧이, 걸립굿, 두레굿, 판굿이다. 이 밖에 작은 굿으로 매굿, 기우제굿 등도 거론된다. 금산농악의 문화행위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연구서는 없지만 위에 든 민병상의 논문과 금산문화원에서 발행한 금산군지에서 소략하게나마 농악의 문화행위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자세히 정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 문화행위를 유추할 수 있어 금산 지역 농악의 문화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문헌의 각 조(條)에서 산발적으로 찾아 볼 수 있다.

당산굿을 행하였다는 것은 〈마을축원굿〉, 〈당산굿〉 조에 보인다. 마당밧이, 걸립굿을 행하였다는 것은 〈마을축원굿〉, 〈쌈굿〉, 〈당산굿〉, 〈문굿〉, 〈성주굿〉, 〈정지굿〉, 〈철용굿〉, 〈마당굿〉, 〈걸립굿〉, 〈판굿〉 조에 보인다. 두레굿(두레풍장)을 쳤다는 것은 〈송계놀이굿〉, 〈두레굿〉 조에 보인다. 판굿을 쳤다는 것은 〈판굿〉 조에 보인다. 이 밖에 작은 굿으로 매굿, 기우제굿, 물이굿, 명절굿 등 작은 농악 행위가 행하였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위에서 거론한 소략한 기술에서 금산 지역에도 다양한 농악 문화가 행하여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깊이 조사한 보고서나 연구서는 아직 없다. 앞으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정밀조사가 이뤄져 금산농악의 문화적 정체성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바란다.

4. 공연적 특성

금산농악의 공연적 특성은 위에서 말한 민병상의 논문²⁾에서 밝혀졌다. 금산농악은 호남좌도농악에 속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다. 그의 논문에 가운데 〈금산농악의

2) 민병상, 위의 글.

형성>에 대한 역사 기술에서 금산농악이 호남좌도농악을 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금산농악 정인삼의 주선으로 진안 출신 김봉열 상쇠를 초청하여 본격적으로 배운 후 형성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금산농악은 진안, 장수 지역 농악과 같이 호남좌도농악과 특성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가 생각하기로는 호남좌도농악 또한 지역에 따라 약간씩 특성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병삼도 금산 진안 쪽 농악은 부들 상모를 쓴다는 점에서 같지만 소고가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금산 진안 농악은 채상 소고를 주로 하고, 임실 쪽은 고깔 소고를 주로 한다는 것을 밝혀 호남좌도농악도 지역적 특성을 달리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그 밖에 다른 점에 의해 호남좌도농악의 지역적 특성이 세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호남좌도농악의 각 지역 판굿의 순서를 다음과 같이 나열하여 봤다.

민상병이 기술한 금산농악 판굿은 다음과 같다.³⁾

:마치굿(열두마치, 외마치~아홉마치), 돌굿(오방진), 품앗이굿, 호호굿(긴호호 자진호호), 갈림굿, 걱정굿, 영산, 개인놀이, 물이굿, 탈복굿, 파송굿

김현숙이 기술한 진안 김봉열의 판굿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⁴⁾

:마치굿, 호호굿, 걱정굿, 춤굿, 오방진, 품아시굿, 느린삼채굿, 영산, 노랫굿, 춤굿 돌굿, 원잔 지레기, 도둑잡이, 파장굿

김익두가 기술한 남원농악 판굿⁵⁾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채굿, 진풀이굿, 호호굿, 영산굿, 노래굿, 춤굿, 등지기굿, 미지기굿, 도둑잡이, 문굿, 점호굿, 헤침굿

3) 앞의 글.

4) 김현숙, 『호남좌도농악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19쪽.

5) 김익두·김정현, 『남원농악』(사단법인 한국농악보존협회 남원시지회, 2006).

양진성이 기술한 필봉농악 판굿⁶⁾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채굿, 호호굿, 풍류굿, 방울진, 영산, 노래굿, 춤굿, 수박치기, 등지기, 도둑잡이, 탈머리

정병호·이보형이 기술한 한천농악 판굿⁷⁾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길굿, 가새진, 짝드름, 이십팔수, 일체-삼채, 호호굿, 사채, 소고놀이, 북놀이, 장고놀이, 오채, 노래굿, 육채, 도둑잡이, 칠채, 날당산굿

이경엽·김혜정이 기술하고 정이동이 정리한 고흥 월포 농악 판굿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질굿, 영산다드래기, 등지기(등지기 잘지기 땅치기, 수박치기) 동리동산굿, 칠채굿, 노래굿, 칠채굿, 영산다드래기, 도둑잡이, 대풍류굿, 동굿, 채굿

호남좌도농악의 판굿은 채굿(마치굿), 오방진, 호호굿, 각정굿, 영산, 개인놀이, 파송굿으로 구성된다는 공통된 특징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특성에서도 호남좌도농악의 지역적 특성이 세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호남좌도농악 판굿은 지역마다 순서가 다른 특성이 있고, 삽입되는 요소가 있어서 몇 가지 지역 유형으로 가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호남좌도농악의 유형을 가리고 금산농악의 특성이 호남좌도농악 가운데 어느 유형에 있다는 것은 금산농악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6) 양진성, 『호남좌도 입실 필봉굿』(전북: 신아출판사, 2000), 145~196쪽.

7) 정병호·이보형,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농악편 한천농악』(서울: 문화재관리국, 1982), 62~65쪽.

8) 이경엽·김혜정, 『고흥 월포농악』(광주: 심미안, 2008), 83~84쪽.